

화끈한 방망이...KIA, 두산전 6연승



11-3 대승...7년만에 1군 무대 흥원빈 마무리 완수
양현종 5이닝 5피안타 1볼넷 5탈삼진 2실점 '4승'

‘호랑이 군단’이 시원한 화력쇼로 두산전 6연승을 이뤘다.

KIA 타이거즈가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시즌 7차전에서 11-3 대승을 거뒀다. 1회부터 3점을 뽑아낸 KIA는 8회 ‘빅이닝’을 만들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부상 복귀전에 나선 두산 선발 박빈의 제구가 흔들린 틈을 놓치지 않았다. 박찬호-최원준-윤도현이 3연속 볼넷을 얻어내면서 만루를 채웠다. 휴식일을 보낸 최형우를 대신해 4번 타자로 나선 위즈덤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오선우가 좌측 2루타로 2타점을 수확했다.

KIA는 황대인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태며 3-0을 만들었다.

KIA 선발 양현종도 출발은 좋지 못했다. 선두타자 정수빈을 좌중간 안타로 내보낸 양현종은 김대환을 1루 땅볼로 처리했지만 케이브에게 좌중간 적시타를 맞았다.

양현종이 1실점은 했지만 김재환과 김기연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이닝을 마무리했다.

영점 잡은 박빈에게 2-3회 5개의 탈삼진을 내준 KIA가 투수가 바뀐 4회 다시 공세에 나섰다.

2사에서 김호령이 양재훈을 상대로 좌중간 2루타를 날리며 공격의 물꼬를 텄다.

박찬호의 볼넷으로 2사 1-2루, 최원준이 중견수 앞에 공을 떨어뜨리며 타점을 올렸다. 윤도현과 위즈덤까지 연속 안타를 날리면서 KIA가 6-1로 달아났다.

넉넉한 득점 지원을 받은 양현종은 5이닝(96구) 5피안타 1볼넷 5탈삼진 2실점(1자책점)을 기록,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성영탁이 6회말 두 번째 투수로 나와 허리 싸움에 힘을 보탤었다.

성영탁은 첫 상대 김기연을 4구째 2루수 플라이

로 잡은 뒤 임중성은 4개의 공으로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투아웃을 만들었다. 김민혁과의 승부에서 유격수 포구 실책으로 주자는 내보냈지만 김동준을 4구째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7회에는 전상현이 나와 삼자범퇴로 이닝을 지웠다.

그리고 8회초 승부의 추를 기울이는 공격이 전개됐다.

황대인이 8구 승부 끝에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빅이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김태균의 희생번트로 대주자 김규성이 2루로 이동했다. 그리고 김호령이 우중간 2루타로 타점을 올렸다.

박찬호와 최원준이 연속해서 2루타를 날렸고, 윤도현까지 안타 행진을 이어가면서 KIA는 11-2로 승기를 굳혔다.

그리고 9회말 눈길 끄는 데뷔전이 펼쳐졌다.

2019 KIA 1차 지명 선수인 우완 흥원빈이 7년만에 기다렸던 1군 마운드에 올랐다.

초구부터 150km 넘는 공을 뿌리며 강속구 투수의 면모를 보여준 흥원빈. 첫 타자 김민석을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이선우를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면서 프로 첫 아웃카운트를 장식했다.

김동준과의 승부에서 조구에 중전안타를 맞으면서 1사 1-3루.

흥원빈은 박준순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1실점은 했지만 정수빈의 대타 김인태를 4구째 스탠딩 삼진으로 잡으면서 프로 첫 탈삼진과 함께 팀 승리를 완성했다.

이와 함께 KIA는 4월 19일 잠실원정부터 시작된 두산전 승리를 6경기째 이어갔다. 전날 이승엽 감독이 자진사퇴하면서 조성환 감독대행 체제로 첫 경기를 치른 두산은 KIA전 연패를 끊지 못하고 3연패에 빠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 데뷔 7년만에 1군 무대를 밟은 KIA 타이거즈 흥원빈이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9회말 마운드에 올라 힘차게 공을 뿌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2일 오후 11시께 이라크 바스라 공항에 도착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홍명보호, 결전지 이라크 입성

손흥민·이강인 등 ‘완전체’...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자신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으려는 홍명보호가 결전지 이라크에 안착했다.

3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일 오후 11시께 전세계기면으로 이라크 바스라 공항에 도착했다.

주장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코치진·스태프가 인천공항을 떠난 지 약 11시간 만이었다.

한국은 6일 오전 3시 15분 이라크 바스라의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을 치른다.

이어 한국으로 돌아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3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펼친다.

현재 우리나라는 승점 16(4승 4무)을 쌓아 요르단(승점 13), 이라크(승점 12)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번 이라크 원정에서 비기지만 곧바로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 선수단이 바스라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시간 2일 오후 5시쯤이었었고, 기온은 무려 44도였다.

선수단은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의 환영 현수막 앞에서 간단한 기념 촬영을 하고 곧바로 숙소로 발길을 향했다.

선수단은 방탄 버스 2대에 나눠타고 경호 차량 및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로 이동했다. 도로 통제도 이뤄졌다.

이번 원정에 참여하는 26명의 선수 중 중동 국가에서 뛰는 권경원, 원두재(이상 코르파칸), 조유민(사르자), 박용우(알아인)는 먼저 이라크에 도착해 숙소에서 동료들을 맞이했다.

1일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을 차지한 이강인은 현지시간 3일 오전 바스라에 도착했다.

현지 기온이 낮 시간대는 최고 45도까지 치솟고, 저녁 시간대에도 35도에 머무는 통에 훈련 시간은 가능한 한 늦은 시간대로 조정하려 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임기영 ‘원점’서 답 찾았다

수정했던 투구폼 ‘원래대로’
‘주무기’ 체인지업 확신 생겨
“차분하게 기회 기다리겠다”

KIA 타이거즈 임기영이 원점에서 답을 찾고 있다.

임기영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FA를 통해 KIA와 인연을 이었다.

3년 총액 15억원(계약금 3억원, 연봉 9억원, 옵션 3억원). 앞선 활약과 2023시즌 성적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과다.

2023시즌 2.96의 평균자책점으로 82이닝을 소화하며 마운드를 지켰던 임기영은 지난 시즌에는 37경기 45.2이닝(평균자책점 6.31)을 채우는 데 그쳤다. 새로 도입된 ABS(자동투구판정시스템)가 상대적으로 사이드암 투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적응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쉬운 시즌을 보냈던 임기영은 ‘재수’ 대신 KIA와의 인연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FA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지난 겨울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야구 트레이닝 센터 트레드 애슬레틱스에서 새로운 변화도 시도했다.

캠핑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FA 첫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올 시즌 7경기에 나온 임기영은 5.1이닝을 소화하면서 15.19의 평균자책점과 1패만 남겼다.

5월 2일 한화전을 끝으로 1군에서 모습을 감춘 임기영은 퓨처스리그에서 ‘임기영 찾기’에 주력했다.

임기영은 지난 31일에는 익숙한 챔피언스필드에서 시험 무대도 가졌다. 이날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와의 퓨처스리그 교류전이 진행됐고, 임기영은 3이닝을 소화했다. 이날 실책으로 1명의 주자는 내보냈지만 피안타, 사사구 없는 깔끔한 피칭이었다.

임기영은 “앞선 경기에서 실투가 맞아 나갔지만 괜찮았다. 많이 잡혔다. 던지면서 볼에 대한 자신감과 생기고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KIA 임기영이 지난 3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소프트뱅크와의 퓨처스리그 교류전에서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와 몸을 풀고 있다.

올 시즌에 앞서 폼을 수정했던 임기영은 체인지업 릴레마에 빠지면서 원점에서 재도약을 준비했다.

임기영은 “폼을 수정했었다. 1군에서 내려왔을 때 안 되는 것 굳이 더 하려 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다. 원래대로 하였던 대로 던지려고 하면서 많이 잡혔다”며 “폼을 수정하면서 상체를 세우니까 팔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체인지업 감이 아예 안 잡혔다. 공이 무뎠고, 자신감이 없었다. 메커니즘에서 작은 것을 바꿨는데 그게 크게 왔었다”고 설명을 했다.

이어 “지금까지 몇 시즌을 이 폼을 했는데 한번에 안 바뀌니까 좋았던 대로 던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2군 이상화 투수 코치님이 KIA 오고 나서 가장 오래 봤던 분인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다. 그전에는 덜 잡힌 상태로 올라가서 불안하

게 있었다”며 “트레이너분들이 운동도 많이 시킨다.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을 다듬은 임기영은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리겠다는 각오다. 부상과 부진이 겹친 불펜에서 성영탁, 김현수, 윤준형 등이 1군에서 어필 무대를 갖고 있다. KIA 입장에서 2017시즌 우승 주역이자, 전천후 투수로 역할을 해왔던 임기영의 마운드 가세도 반가운 사나리이다.

임기영은 “밀에서 준비를 열심히 잘했던 친구들이다. 잘 던져주면 좋겠다. 여기에서 올라갔던 애들이 잘하면 좋다. 다 같이 응원해 주고 있다”며 “나도 내 볼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지금 상태 유지하면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